

#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

김희철\*\* · 진관훈\*\*\*

## 目 次

- I. 머리말
- II.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
- III. 재일 제주인 제주사회기증의 변천과정
- IV. 재일 제주인 제주사회기증과 제주사회의 변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재일 제주인 기증의 변천과정을 제주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일 제주인 제주사회기증의 기초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재일 제주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도에의 기증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혈연적 결연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일 제주인의 물적 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에의 기증은 재일 제주인 애향심의 물질적 표현으로 고향 제주와의 연대감 형성은 물론 제주도민과 재일 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 기저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제주인의 제주사회기증에 대한 연구는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 간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sup>1)</sup>.

\* 이 연구는 2006년 학술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1) 小川伸彦·寺岡伸悟,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 『奈良女子大學 社會學論集』2號, 日本: 奈良女子大學, 1995. pp. 77~97.

그러나 현재 제주사회에서 재일 제주인 기증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제주사회의 사회적·학문적 관심은 미미한 상황이다.

언제부터인가 제주사회에서 재일 제주인의 기증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으며 오히려 재일 제주인의 기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의존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일 제주인 기증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대수준 또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등 역기능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도 있다.

또한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와의 관계가 형제애를 기반으로 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일 제주인을 제주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주사회의 인식과 재일 제주인 기증에 대한 무성의한 대처는 재일 제주인 1세는 물론이고 재일 제주인 2·3세에게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이로 인해 재일 제주인 2·3세는 물론이고 1세대들도 제주사회에 대한 기증이나 투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현대사에 커다랗게 자리 메김 하고 있는 재일 제주인 기증의 변천과정을 고찰해봄으로써 해서 재일 제주인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민·제주사회와의 미래지향적이며 상호동반적인 관계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재일 제주도민들의 기증 실적은 제주도청 홍보과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기증 실적 중 제주도청과 각 시군 교육청, 도내 대학, 체육회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 제주도(1991), 『愛郷의 보람 -在日同胞 寄贈實績-』과 1999년, 1990년 발간한 『愛郷의 보람 -在日同胞 寄贈實績-』에 수록된 기증실적 중 누락된 분과 추가로 파악된 사항을 첨가한 제주도(1999), 『愛郷의 보람 -100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로-』(증보판)를 기초로 하였다. 이후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재일 제주인 기증실적은 제주도내 일간지를 검색하여 정리하였고 이외에 在日本濟州道民會 30年史인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 -在日本濟州道民會 30年史』와 在日本濟州開發協會 30年史인 在日本濟州開發協會(1991), 『愛郷無限-在日本濟州開發協會 30年史-』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재일 제주인의 기증에 관한 대표적 선행연구는 小川伸彦·寺岡伸悟(1995)를 들 수 있다<sup>2)</sup>. 이 연구는 재일 제주인의 인적네트워크가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증을 재일

2) 小川伸彦·寺岡伸悟,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 寄贈」, 『奈良女子大學 社會學論集』 2號, 일본: 奈良女子大學, 1995, pp. 77~97.

제주인의 인적네트 관점에서만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입장에서 재일 제주인의 기증이나 재일 제주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고찰은 소홀한 감이 있다. 또한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민과의 관계설정,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설정에 대한 서술도 다소 미흡하다.

한편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연구로는 고동훈(2001)의 논문을 들 수 있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재일 제주인의 이주역사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현재의 경제생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저자가 연구목적으로 일본에 장기체류하며 재일본제주도민협회과의 상호교감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논문에 비해 재일 제주인사회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 이루어 졌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본현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재일 제주인 기증의 변천과정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재일 제주인 기증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

2003년 말 현재 일본 거주 외국인 등록 통계에 따르면 재일 한국·조선인 총수는 632,405명으로 타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한편 2003년 기준 재일 한국·조선인 총수 632,405명 중에서 재일 제주인은 107,666명으로 전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귀화자를 포함하게 되면 재일 제주인수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주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1.1%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재일 한인사회에서 재일 제주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방 후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재일 제주인사회의 세대교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재일 한국인 1세가 6%, 2세 37%, 3세 48%, 4, 5세가 9%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일 제주인들은 동경이나 대관 등 대도시에 집주하는 경향이 많은데 동경에는 미카시마(三河島), 대관에는 이쿠노구(生野區)를 중심으로 재일 제주인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재일 제주인들은 마을, 학교, 문중 등 여러 형태의 친목단체와 같은 비공식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지연·학연·혈연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3) 고동훈, 「濟州島出身者の日本移住に関する研究」, 『漢學山』 제8호, 재일본제주도민협회, 2001, pp. 150~157.

4) 이문용,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서울: 집문당, 1998, p. 69.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표 1〉 재일 한인의 본적지별 구성현황(2003년)

(단위 : 명, %)

본 적	재일 한인수(명)	비율(%)
서울시	53,242	8.42
부산시	24,038	3.80
광주시	1,897	0.30
대전시	1,550	0.25
경기도	21,380	3.38
충남도	11,829	1.87
충북도	10,031	1.59
전남도	45,361	7.17
전북도	11,302	1.79
경남도	191,293	30.25
경북도	137,727	21.78
강원도	4,606	0.73
제주도	107,666	17.02
확인안됨	1,724	0.27
북 한	3,373	0.53
기 타	5,386	0.85
합 계	632,405	100

자료 : 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국사무소, <http://www.mindan.org.kr>

이들 재일 제주인들은 이주 초기부터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주하였다기보다는 단순 노동력만 가지고 일본의 저임금 단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과 봉제업에 종사하는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인들이 이른바 3K, '키다나이'(지저분함), '키츠이'(힘듦), '코와이'(위험함)이라는 직업분야 즉 고무, 신발, 의류, 유리공장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 90%를 넘고 있다<sup>5)</sup>.

비록 초창기에 신발공장, 고무공장과 같은 단순노동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기계 설비, 조선업, 관광업, 부동산업, 교통 심지어 IT 분야와 같은 최첨단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기술과 자본 면에 일본인·일본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렇듯 재일 제주인들의 기업활동은 업종 면에서 다양화해 가고 있으며 사업규모 역시 확대시켜 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재일 제주인 간에 경제생활의 다양성과 격차가 심

5) 신형철, 「제주인의 경제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pp. 53~72.

화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 이주 1세대 겸 창업 1세 재일 제주인들이 그 후손들에게 운영권을 계승하고 제2선으로 물러나 지금은 이주 2·3·4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경제의 버블몰락 이후 그 동안 재일 제주인들의 가장 많이 종사하던 바칭코, 부동산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재일 제주인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경제는 지난 12년간의 장기침체를 마감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일 제주인들 역시 일본경제 회복에 따라 경제회생을 위해 활발히 경제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 1. 주요 종사 업종

〈표 2〉를 통하여 재일 제주인의 세대별 주요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제조·가공업(가죽가공, 금속가공)으로 전체의 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매·상점 13.0%, 음식점(주로 분식점, 불고기집, 한정식점 등) 11.4% 순이다. 이외에 건설현장작업, 토목작업과 같은 남성 위주의 단순노동과 봉제와 같은 여성 노동 분야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업종과 비율

(단위 : %)

	1世	2世	3世	計
飲食店	17.2	12.1	0.0	11.4
遊興店	0.0	3.0	0.0	2.2
건설현장작업·토목작업	6.9	7.6	12.5	8.1
운반·운송(운전수)	3.5	3.8	0.0	3.2
제조·가공업(가죽가공, 금속가공)	37.9	39.4	20.8	36.8
여관·호텔 작업	0.0	2.3	4.2	2.2
봉제	3.5	9.1	4.2	7.6
灸師	0.0	0.8	0.0	0.5
의료	3.5	0.8	12.5	2.7
악국	3.5	0.0	0.0	0.5
소매·상점	17.2	9.1	29.2	13.0
농림어업	3.5	0.0	0.0	0.5
기타	3.5	12.1	16.7	11.4
계	29	132	24	185

자료 : 金正根·園田恭一·辛基秀, 「在日韓國·朝鮮人の健康生活·意識」, 동경 : 明石書店, 1995, p. 220.

이에서 보면 제일 제주인들은 기술이나 자본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단순노동이나 소규모 자본과 부부 중심의 자가 노동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봉제, 가내공업, 음식점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1세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2, 3세대로 갈수록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특히 3세대에 가면 의료부문 종사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업종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세대들이 영세한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후손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에 힘쓴 결과 일정 소득이 보장되던 것도 진출이 가능한 의료분야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빠칭코 사업과 부동산업이 1990년대 이후 제일 제주인의 주력 사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유흥점 분야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종사자 수를 양적으로만 파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2. 고용형태와 작업내용

<표 3>을 통하여 제일 제주인들의 고용형태와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영이 가장 많은 32.8%이며 그 다음으로 민간기업 상시고용 31.1%, 가족종업원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일고용이나 임시고용도 5.5%가 되며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3.4%)이나 단체의 경영(3.1%)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3> 고용형태와 작업내용

(단위 : %)

	1世	2世	3世	計
민간기업 상시고용	23.6	32.1	33.9	31.1
공무원	7.3	1.2	8.5	3.4
회사·단체의 직원·경영	7.3	2.5	1.7	3.1
자영업주	40.0	32.9	25.4	32.8
가족종업원	7.3	14.8	11.9	13.2
일일고용·임시고용	5.5	4.9	5.1	5.0
내직(內職)	3.6	4.5	3.4	4.2
기타	5.5	7.0	10.2	7.3
계	55	243	59	357

자료 : 金正根·團田恭一·辛基秀, 『在日韓國·朝鮮人の 健康·生活·意識』, 동경 : 明石書店, 1995, p. 219.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로 더욱 심화되어 갔으며 소위 '제첸드림'을 꿈꾸며 일본 도항을 해 왔던 제주도민들의 노동력 이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고용형태와 작업 내용을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영업 비율은 1세대가 가장 높고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전체적인 비율은 유지하고 있으나, 세대 간 상대적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 상시고용 분야에 있어서 3세대로 갈수록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서 보면 1세대로부터 3세대로 오면서 자영 보다는 민간 기업 상근 근로자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점차 재일 제주인들의 소비생활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개인의 속한 기업이나 직장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노력과 의사결정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정액소득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기증과 같이 목돈이 필요할 때 소비 가능 범위가 제한될 밖에 없다.

### 3. 기업 규모

재일 제주인의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기업이나 자영업, 개인상점 등이 있다. 그러므로 재일 제주인 중에는 수백 명을 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 혼자이거나 혹은 가족종사자만으로 경영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시 말해 재일 제주인 중에는 수백 명 규모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해도 손색이 없는 경영자, 조그마한 지역에서 4~5명 고용하여 영업하는 상점주인들이 있다.

〈표 4〉 기업규모

(단위 : %)

	1世	2世	3世	計
자기 혼자	12.3	12.0	9.8	11.7
2인~5인	52.6	36.4	32.8	38.3
5인~19인	17.5	26.5	26.2	25.0
20인~99인	14.0	17.4	11.5	15.8
100인 이상	3.5	7.4	13.1	7.8
공무원	0.0	0.4	6.6	1.4
계	57	242	61	360

자료 : 金正根·園田恭一·辛基秀, 「在日韓國·朝鮮人の健康·生活·意識」, 동경 : 明石書店, 1995, p. 220.

〈표 4〉를 통해 재일 제주인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2인~5인이 가장 많은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인~19인이 25.5%, 20인~99인 15.8% 순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자기 혼자의 노동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11.7%나 된다.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세대일수록 2인~5인 규모가 가장 많고 3세대로 가면서 이보다 확대된 5인~19인 규모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3세대에서 100인 이상 규모의 비율이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현상은 재일 제주인들의 경제적 역할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 해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 Ⅲ. 재일 제주인 제주사회기증의 변천과정

제주도에 사는 사람 중에서 재일 제주인 기증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나 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sup>6)</sup>. 재일 제주인의 기증은 수혜를 받은 제주도민 개인에게는 생활의 질적 향상, 이전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어 왔으며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개발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초기 자본·자원조달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 1. 재일 제주인 기증의 변천

우선 <표 6>를 통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실적을 연도별·지역별 기증건수와 연도별·사업별 기증건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에서 보면 1973년, 1974년을 전후로 하여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건수가 가장 많다. 특히 1973년에 470건인데 이중 남제주군이 190건, 북제주군 140건 등이다. 이 시기 북군과 남군지역의 새마을사업성금, 마을 전기, 도로가설, 지역초등학교 전기 수도가설, 도로정비사업, 리 사무소 소비품, 초등학교 도서, 새마을회관 건설 등 지역사회 공헌이 붐을 이루었다.

특히 1984년에는 262건인데, 이는 제주 최초로 전국소년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재일 제주인들에 대한 도 단위, 체육회 단위의 기증 요청이 컸었고 이에 대한 부응이 활발하였다.

이후 1990년 149건, 1991년 168건 이후 급격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와 그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재일 제주인들의 소득과 경제활동이 급격히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일 제주인들의 종사업종 중 상당부분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분야 즉 유흥업, 음식업, 부동산업 등이었으므로 이들 분야 종사 재일

6) 진관훈,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5, p. 154.



제주인들은 일본 경제의 경기침체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 6〉 연도별·지역별 기증건수 추이

(단위 : 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966년 이전	27	154	175	303	258	917
1967	5	34	28	81	54	202
1968	5	26	10	58	48	147
1969	4	23	61	76	56	220
1970	17	26	24	27	52	146
1971	12	27	26	65	89	219
1972	32	39	36	105	49	261
1973	47	43	43	140	197	470
1974	24	48	43	107	116	338
1975	8	31	29	125	66	259
1976	12	46	16	53	68	195
1977	6	24	11	101	23	165
1978	14	24	29	53	48	168
1979	10	14	15	72	61	172
1980	17	62	12	69	67	227
1981	9	19	5	55	51	139
1982	23	10	18	46	37	134
1983	4	4	10	35	29	82
1984	205	10	4	30	13	262
1985	14	1	6	39	17	77
1986	2	7	40	35	23	107
1987	5	5	6	44	42	102
1988	19	16	7	73	26	141
1989	16	9	9	31	34	99
1990	36	11	42	42	18	149
1991	8	12	9	126	13	168
1992	9	11	5	23	8	56
1993	17	15	6	44	5	87
1994	4	11	0	11	2	28
1995	5	4	4	76	7	96
1996	1	4	0	26	14	45
1997	2	4	2	12	7	27
1998	5	6	1	31	1	44
1999	7	2	1	62	4	76
2000-2004	7	4	9	7	2	29
합계	638	786	742	2,283	1,605	6,054

다음으로 <표 7>를 통하여 연도별·사업별 기증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교육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하였다. 특히 1980년 이후, 1990년대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 생활시설 구비사업이나 생활원조 목적의 기증에서 점차 탈피하여 교육 분야나 문화와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증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증 동기는 기증 초기에는 고향 제주에 대한 동정과 애향심 혹은 고향의 경제 수준 낙후에 대한 지원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면 점차 재일 제주인의 경제적 성취에 따른 제주사회에의 환원, 사회적 명예나 체면 유지 등의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도별·사업별 기증액수 추이

(단위 : 천원)

연도별	교육사업	공공사업 (새마을사업)	문화·복지 사업	기타	합계
1966까지	166,758	47,939	23,522	3,489	241,708
1967	32,912	14,885	22,856	1,366	72,019
1968	28,573	5,435	16,510	1,995	52,513
1969	48,152	3,733	17,329	1,160	70,374
1970	16,701	27,290	29,458	5,463	78,912
1971	14,477	12,796	34,080	4,344	65,697
1972	28,336	33,406	7,057	5,593	74,392
1973	35,558	100,771	51,696	17,084	205,109
1974	54,745	79,612	29,916	19,717	183,990
1975	17,558	57,639	21,448	10,238	106,883
1976	52,114	70,105	16,414	6,462	145,095
1977	31,931	87,549	8,260	7,130	134,870
1978	45,290	82,897	18,377	13,880	160,444
1979	40,609	63,710	10,710	13,141	128,170
1980	96,061	165,317	2,280	20,582	284,240
1981	90,242	57,125	8,480	7,380	163,227
1982	193,930	56,035	10,094	4,147	264,206
1983	148,818	31,170	770	3,060	183,818
1984	554,729	1,630,120	10,200	3,350	2,198,399
1985	3,879,777	367,900	5,690	55,671	4,309,038
1986	81,230	160,200	85,441	10,055	336,926
1987	197,109	282,153	45,300	46,542	571,109
1988	1,326,620	403,330	52,198	31,406	1,813,554
1989	268,283	701,120	94,683	51,660	1,116,283
1990	452,610	554,110	41,965	206,276	1,254,951
1991	507,066	218,370	7,905	9,475	742,816

연도별	교육사업	공공사업 (새마을사업)	문화·복지 사업	기타	합계
1992	238,191	238,391	44,300	9,000	6,500
1993	176,688	327,500	36,100	13,400	553,688
1994	246,044	6,500	20,050	8,400	275,994
1995	1,281,946	356,960	0	2,100	1,646,006
1996	82,112	403,800	5,800	12,300	504,012
1997	510,668	77,400	1,000	16,650	605,718
1998	6,826,879	235,800	1,500	9,500	7,073,679
1999	1,568,925	261,100	0	42,500	1,872,525
2000-현재	1,002,700	2,855,700	53,700	2,000	3,914,100
합계	20,344,342	10,077,868	835,089	676,516	27,496,865

## 2. 분야별 기증물품의 변천

이 절에서는 재일 제주인 기증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증물품과 기증물품 용도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기증물품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서 기증의 실질적 목적을 알 수 있고 또한 기증수혜자가 기증자에 대해 가지는 고마움과 감동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를 통하여 분야별 기증건수를 살펴보면 교육·문화 분야가 38.93%로 가장 많고 친목단체육성이 32.04%로 다음 순이다. 친목단체 육성분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며 교육·문화 분야는 1990년 이후 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지역 차원에서 보면 기증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 향상과 경제적 원조가 이루어져 경제생활이 향상되었으며 기증자 자신에게는 사회적 명예와 체면 유지가 충족되어 졌음을 말해 준다.

〈표 8〉 분야별 기증

(단위 : 건, 괄호 내 : %)

교육·문화	2,357 (38.93)	38.93
공공·행정	660 (10.91)	10.91
산업·개발	504 (8.33)	8.33
새마을사업	406 (6.70)	6.70
보건·복지	119 (1.96)	1.96
친목단체육성	1,940 (32.04)	32.04
화재·기타	68 (1.10)	1.10
합 계	6,054	100.0

이외에 한라문화제, 전국소년체전 개최 등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행사에 따른 기

증이 활발하였다. 한편 공공행정 분야 기증은 주로 지자체 비품, 운영비 지원 등이 많았는데 이것은 마을의 요구나 필요, 기증자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 유지 등의 기증 목적이 작용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70년도 초기 새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기증이 이루어졌던 것을 제외하고 여타 사회간접 자본 건설이나 산업 개발 분야에 대한 기증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은 1990년 이후 재일 제주인 기증이 점차 투자 형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에서 <표 9>에서 재일 제주인 기증을 용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동산·시설 건축(37.5%), 비품류(29.3%), 기금·운영비(23.7%) 순이다. 부동산이나 시설건축 등에 대한 기증은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과 함께 붐을 이루었던 마을 복지관, 마을 회관 건립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외에 마을, 각급학교의 비품류 등도 있다. 이는 대부분 재일 제주인들의 마을단위 친목회의 노력 즉 재일 제주인 인적네트워크의 영향과 제주의 친족, 친지의 요청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기증자의 자발적 기증도 많이 이루고 있었지만 1990년 이후 도내대학의 발전기금의 증가와 마을 건물 건축비, 운영비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표 9> 용도별 기증건수

(단위 : 건, 괄호내 : %)

부동산·시설 건축	2,268	37.5
비품류	1,774	29.4
기금·운영비	1,435	23.7
위문·복지	224	3.7
도서	200	3.3
기념물건립	134	2.2
기타	19	0.3
합계	6,054	100.0

다음 <표 10>를 통하여 용도별 기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기증 대부분은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물품은 제주도 생활향상에 전반에 기여한 물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각급학교 물품 기증이 대부분이었다. 점차 문화재 보호, 마을 공동묘지 기금 등 공동체 복원 측면이 강화되는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과 같이 특별한 행사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기증이 이루어지거나 제주도 전체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증도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 사회복지의 확대 즉 마을회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운영비 지원 등도 증가하며 기관별로는 2000년대 이후 도내 대학의 발전 기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용도별 기증건수 추이

(단위 : 건, ( ) : 행%, < > : 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현재	합계
부동산·시설	728 (32.10) <48.99>	791 (34.88) <33.05>	360 (15.88) <26.27>	386 (17.02) <49.74>	3 (1.12) <10.34>	2,268 (100.0) <37.47>
비품류	590 (33.26) <39.70>	756 (42.62) <31.59>	372 (20.97) <27.15>	55 (3.10) <7.08>	1 (0.06) <3.44>	1,774 (100.0) <29.31>
도서	67 (18.72) <4.50>	56 (15.65) <2.34>	80 (22.35) <5.83>	153 (42.74) <19.71>	2 (0.05) <6.89>	358 (100.0) <0.59>
기금·운영비	99 (0.69) <6.66>	721 (50.25) <30.12>	551 (38.40) <40.21>	52 (3.63) <6.70>	12 (0.08) <41.37>	1,435 (100.0) <23.71>
위문·복지	2 (3.13) <0.13>	0	5 (7.82) <0.36>	54 (84.38) <6.95>	3 (4.69) <10.34>	64 (100.0) <1.06>
기념물설립	0	69 (51.50) <2.88>	2 (1.50) <0.14>	55 (41.05) <6.95>	8 (5.97) <27.58>	134 (100.0) <2.22>
기타	2 (7.15) <0.13>	0	5 (17.86) <0.36>	21 (75.00) <2.70>	0	28 (100.0) <0.04>
합계	1,486 (24.55) <100.0>	2,393 (39.53) <100.0>	1,370 (22.63) <100.0>	776 (12.82) <100.0>	29 (0.04) <100.0>	6,054 (100.0) <100.0>

### 3. 기증처의 변천

이 절에서는 제주도내 행정단위별 기증액의 연대별 흐름을 살펴보려 한다. 즉 도단위 기증과 군 단위 기증을 비교하려고 한다. 이 비교 분석으로 인해 일본 내 제주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늠할 수 있고 아울러 재일 제주인들이 인식하는 고향의 범위, 즉 제주도 전체를 고향으로 보는 가, 아니면 군 혹은 마을 단위를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표 11〉에서는 제주도내 행정단위별 기증액수의 연대별 흐름을 알 수 있다. 이에서 보면 재일 제주인 기증건수 총 6,054건(27,496,865,000원)이고 이중 제주도전체 638건, 제주시 786건, 서귀포시 742건, 북제주군 2,283건, 남제주군 1,605건으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가장 많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건수 면에서 북제주군의 기증건수, 기증액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재일 제주민들의 숫자와 재일 제주 마을단위의 친목회 활동 활성화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해 준다. 즉 재일 제주인들의 일본 내에서의 경제활동은 물론 제주에서 지역사회공헌현상 역시 재일 제주인들의 인적네트워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네트워크가 활발한 북제주군이 지역사회 기증예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도일 동기, 제주에서의 의식,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 한편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사회 공헌예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행정구역 편성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마을단위 향리 친목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서 결론지을 수 있듯이 재일 제주인들의 지역사회공헌은 마을 친목회 단위의 노력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현재 파악된 재일 제주인 인적 네트워크는 제주도 전체 18, 제주시 23, 서귀포시 16, 북제주군 62, 남제주군 28, 기타 3, 총 145개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재일 제주인 인적네트워크 현황

지역	인적 네트워크 명칭
제주도 전체	재일제주도친목회(대판제주친목회), 재일(본)제주경제인협회, 재일제주도민회(재일본제주도민회), 재일제주청년회(대판), 재일대판제주도4단체종합추진위원회, 재일제주도체육회, 재일제주개발협회(주식회사 제주, 동경), 재일본제주도새마을부인회대판본부, 재일제주도부인친목회(대판), 재일제주대학교서기증위원회, 재일교포향토방문단(대판), 재일경도부인친목회, 탐라연구회(동경, 대판), 탐라라이온스클럽, 샌다이제주로타리클럽, 재일본샌다이제우회, 재일오현동창회, 재일제주북교 34회동창회
제주시	대판화북1동부인회, 회천동재일교포친목회, 재일의도동친목회, 재일연대친목회(외도동), 내도동대판친목회, 내도동동경친목회, 재일월평친목회, 재일오라동출신모국방문단(대판), 재일동경이호동친목회, 재일두신친목회, (도두동) 사수동출신재일동포일동, 재일도두친목회, 재일도남친목회, 재일연평친목회, 재일본오라교포회, (봉개동) 재일대판친목회, 재일본봉개동친목회, 재일(이호동) 현사부락친목회, (건입동) 산지용진회재동경향우회, (건입동) 동경산지친목회, (노형동) 해안동친목회, 재대판재일증동창회
서귀포시	재일서귀읍친목회, 재일본서귀포시우회, 재일본서귀포시대천동월평출신부인회(중문출신) 친목회일동, (중문출신) 부인회, (예래동) 관서친목회, (예래동) 동경친목회, 대일하에리하동친목회, (하원출신) 친목회, 재일본강정국교교육후원회(대판)제법건친회, 재대판제법건친회, 재대판제법친목회, 재대판제법부인친목회, 제동경법환유지회, 재일본제법부인건친회(대판)

7) 小川伸彦·寺岡伸悟, 전개논문, p. 86.

지역	인적 네트워크 명칭
북 제 주 군	(구좌읍) 산내협우회, 재동경김녕친목회, 재일송당리협력친목회, 재일평대리친목회(대판), 재일본세화리협의회(동경), 재일본세화부인회, 상도리상조회, 재일본귀덕친목회, 대판귀덕친목회, 재일한림읍부인회, 재일협재리친목회(대판), 재릉지구악기기증위원회, 재일수원리향우회, 수원국민학교출신, 재일용포리친목회, 재일용포출신청년회, (애월읍) 재일장전친목회, (애월읍) 대판친목회, 재동경애월친목회, 재일애월읍친목회, 귀일리미수동출신친목회(대판), 재일동귀리친목회, 재동경신업유지회, 재동경신업중후원회, 재일곽지리, 재일광령친목회, 재일본금성리협의회, 재일중암리친목회, 재일계림클럽, 재대판고내리친목회, 재동경고내부인회, 재일고내리친목회(고내리재일동포친목회), (조천읍) 재일교포10인친목회, (조천읍) 재일교포가로포장추진위(대판), (조천읍) 재3회졸업생(대판), 재일와흘친목회, 재일선출친목회, 재일조천친목회(동경), 재일북촌친목회, 동경북촌리친목회, 재일함덕리친목회, 재일함덕리부인회(대판), 함덕교제1회동창회, 재일신촌친목회, 신촌교제4회졸업생(대판), 재일신촌교5회동창회(대판), 신촌교제9회졸업생, 신촌교연합동창회, 조천국교제17회재대판친목회, 한경면 동경친목회, 재일한경친목회, 재동경금능친목회, 재동경신창친목회, 재일판포친목회, 재동경판포친목회, 재일관서지구한원친목회, 재동경한원리부인회, 재일고산친목회(동경), 재일고산중증추위원회(동경), 재일용수친목회, 재일저청중후원회, 재일연평친목회(대판)
남 제 주 군	재대판가파친목회, 재동경상모리교포, 재일대한대정고을친목회, 재일성산친목회, 재일성산상우회, 재일대판성산친목회, (성산읍)재일대판교민친목회, 재일신산친목회, 재일수산국교후원회, 재일수산부인회, 재일수산리친목회, 재일난산친목회(대판), 재일남원친목회, (남원읍) 재일제주청년회, (남원읍) 청년회, 재일신흥리민회, 재일신예1리 출신(대판), 재일태흥인교육후원회, 재일동경거주태흥친목회, 재일위미국교졸업생, 재일본효돈공진회(대판), 재일안덕감산친목회, 재일본관동덕수부인회, 덕수출신대판친목회, 재일화순청년회(동경), 재일대평리친목회, 재일대평국교동창회, 재일표선면상고후원회, 대판상은보시상우회, 재일제성회, 도라지회

자료 : 小川伸彦·寺岡伸悟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 『奈良女子大學 社會學論集』 2號, 일본:奈良女子大學, 1997, pp. 95~97.

〈표 11〉 지역별 기증액 추이

(단위 : 천 원( ) : 행 %, < > : 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1960년대	36,295 (8.31)	43,469 (9.95)	122,824 (28.13)	117,013 (26.80)	117,013 (26.80)	436,614 <1.58>
1970년대	228,027 (17.75)	115,232 (8.97)	115,232 (8.97)	396,119 (30.84)	429,491 (33.44)	1,284,101 <4.66>
1980년대	4,065,221 (37.90)	471,951 (4.39)	1,201,324 (11.19)	3,292,931 (30.69)	1,694,734 (15.80)	10,726,161 <39.00>
1990년대	5,510,705 (49.48)	21,549 (0.19)	48,833 (0.43)	4,126,514 (37.05)	1,428,288 (12.82)	11,135,889 <40.49>
2000년 - 현재	850,000 (21.71)	24,500 (0.62)	2,293,000 (58.58)	639,600 (16.34)	107,000 (2.73)	3,914,100 <14.23>
합계	10,690,248 (38.87)	676,701 (2.46)	3,781,213 (13.75)	8,572,177 (31.17)	3,776,526 (13.73)	27,496,865 (100.0)/<100.0>

이어 <표 12>를 통하여 지역별 기증 건수를 살펴보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기증건수가 많다. 여기에서 제주도가 건수에 비해 기증액수가 많은 것은 제주도 수준의 기증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개인이 많고 기증액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전도 수준의 기증이 증가한 것은 사회적 명예, 위신, 체면 유지 등과 재일 제주인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제주사회의 기대 수준 확대, 경제적 성취에 따른 제주사회의 환원 기대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여 진다.

<표 12> 지역별 기증건수 추이

(단위 : 건, ( ) : 행 %, < > : 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1960년대	41 (2.76) <6.43>	237 (15.95) <30.16>	274 (18.44) <36.93>	518 (34.86) <22.69>	416 (28.00) <25.92>	1,486 (100.0) <24.55>
1970년대	182 (7.61) <28.533>	322 (13.46) <42.24>	272 (11.37) <36.66>	848 (35.44) <37.15>	769 (32.14) <47.92>	2,393 (100.0) <39.53>
1980년대	314 (22.92) <49.22>	143 (10.44) <18.20>	117 (8.54) <15.77>	457 (33.36) <20.02>	339 (24.75)	1,370 (100.0) <22.63>
1990년대	94 (12.12) <14.74>	80 (10.31) <10.18>	70 (9.02) <9.44>	453 (58.38) <19.85>	79 (10.18) <4.93>	776 (100.0) <12.82>
2000년 - 현재	7 (24.14) <0.11>	4 (13.80) <0.05>	9 (31.04) <1.22>	7 (24.14) <0.03>	2 (6.90) <0.01>	29 (100.0) <0.04>
합계	638 (10.54) <100.0>	786 (12.99) <100.0>	742 (12.26) <100.0>	2,283 (37.71) <100.0>	1,605 (26.52) <100.0>	6,054 (100.0) <100.0>

이어 <표 13>에서는 기증을 받는 제주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13>은 위 <표 11>과 <표 12>을 기증측의 변화 관점에서 종합·재구성한 것이다. 이 <표 13>을 통하여 재일 제주인들의 애향심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서 보면 1960년대 이후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은 기증액, 기증건수 모두 군지역이 많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기증액, 기증액수 모두 전도 단위의 기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기증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기증건수에 비하여 기증액수의 규모가 두드러지게 크다. 이는 지역, 마을단위의 기증액 규모에 비해 도 단위의 기증일 경우 액 규모가 훨씬 크고 내용도 지역이나 기관의 발전기금, 체육성금과 같이 현금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예를 들면 도내 대학 총장이 발전기금 모집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거나 체육회 성금모집과 같은 것이다. 또한 제주도내의 소년체전, 전국체전과 같이 전도 차원의 큰 행사 지원을 위해 제주도에서 재일 제주인들에게 기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실현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90년대의 통계에서 전도 단위의 기증건수 비율은 12.12%(94건)인데 비해 기증액 비율은 상대적으로는 이보다 높은 49.4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 당시 재일 제주인 기증이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건립 자금 등 규모가 크고 굵직한 사업에 기증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2000년대전도 단위의 기증액수 비율과 기증건수 비율이 유사하다. 즉 이때 지역에서 규모가 큰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예를 들면 2002년 서귀포시 강정동 복지회관 건립 기증 등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은 초기에는 고향 제주도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인식, 과거 경제적으로 낙후된 고향 제주도에 대한 인식 등이 작용하여 지역적, 사적인 기증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점차 기증의 동기가 사회적 위신, 명예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단체별 기증액·건수의 추이

(단위 : 천원, 건, 괄호내 %)

		전도	지역	합계
1960년대	기증액	39,295(8.31)	400,319(91.69)	436,614(100.0)
	기증건수	41(2.76)	1445(97.24)	1,486(100.0)
1970년대	기증액	228,027(17.75)	1,056,074(82.25)	1,284,101(100.0)
	기증건수	182(7.61)	2,211(92.39)	2,393(100.0)
1980년대	기증액	4,065,221(37.90)	6,660,940(62.1)	10,726,161(100.0)
	기증건수	314(22.92)	1,056(77.08)	1,370(100.0)
1990년대	기증액	5,510,705(49.48)	5,625,184(50.52)	11,135,889(100.0)
	기증건수	94(12.12)	6,82(87.88)	776(100.0)
2000년 - 현재	기증액	850,000(21.71)	3,064,100(78.29)	3,914,100(100.0)
	기증건수	7(24.14)	22(75.86)	29(100.0)
합계	기증액	10,690,248(38.37)	16,806,617(61.73)	27,496,865(100.0)
	기증건수	638(10.54)	5,268(89.46)	6,054(100.0)

## Ⅳ. 재일 제주인 제주사회기증과 제주사회의 변화

### 1. 기증 동기의 변화

기증 초기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 동기는 주로 고향 제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동정이나 거주하는 일본과 고향 제주와의 경제적 격차 그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이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점차 재일 제주인들의 경제적 성취에 따라 고향 제주에 환원, 기증자 개인의 명예, 체면 등의 요소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증자가 재일 제주인 1세인 경우 후손 즉 재일 제주인 2세·3세에 대해 고향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는 교육적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제주도도에 있는 재일 제주인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개인적·이해관계나 제주사회에서의 요구가 기증자의 동기와 합치되어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기증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의 변화

기증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말하면, 기증 초기 기증자에 대한 제주사회의 감동과 고마움은 기증이 증가되면서 점차 희석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증에 대한 제주사회의 요구와 기증액 규모는 증가해 가는 반면 수혜자인 제주사회에서는 재일 제주인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감의 심화, 기증에 대한 제주사회의 보답과 인식의 미약 같은 역기능이 부각된다. 이로 인한 재일 제주인 1세대는 물론 재일 제주인 2·3·4 세대들의 제주사회에 대한 실망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 3. 기증 요청처의 변화

기증 요청처의 변화를 살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재일 제주인이 인식하는 '고향'의 범위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면 기증 초기에는 마을 수준, 개인, 친족 수준의 기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전도 수준의 기관, 사업이나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에 대한 '범위'가 마을 단위, 군 단위에서 점차 전도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8)</sup>.

8) 小川伸彦·寺岡伸悟, 전개논문, p. 88.

#### 4. 제주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재일 제주인의 기증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보면, 기증 초기부터 제주도민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고 점차 생활개선이나 경제성장의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제주사회의 경제개발과 관광사업, 새마을 사업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교육, 문화, 체육 등 사회·문화 전반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일 제주인의 기증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경제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9년과 1970년 2차에 걸쳐 감귤묘목 40만 여 본을 보내오는 등 제주도 감귤산업의 기반조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관광단지 조성, 지역개발 사업, 경제기반 조성 등 제주경제의 성장에 초석이 되어 왔다. 지금도 제주도내 각 마을 마다 이들의 공적비와 기증내용을 적은 비석이 많다. 이것은 각 마을 마다 교량 건설, 상수도 건설, 전기 가설 등과 같은 기반조성과 소득향상 사업 지원 등 제주경제에의 공헌 사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일 제주인들의 물질적 공헌에 대해 제주사회에서는 무감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재일 제주인들의 제주사회 기증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은 지역사회 개발, 교육발전, 마을발전과 제주도 전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의 생활상태 개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해왔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기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실적을 고찰하다 보면 규모면에서 축소하고 있으며 기증물과 기증처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특히 기증의 축소경향은 향후 재일 제주인들과 제주도, 제주도민과의 관계와 교류 전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그동안 따뜻한 인간적 관계유지나 교감이 없이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만이 제주인의 관심사이었기 때문에 재일 제주인들은 제주사회 기증에 대해 허탈감과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제주와 재일 제주인 사회 간 갈등이 조성되고 불신의 관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를 계기로 제주와 재일 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인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일 제주인의 제주사회에의 공헌과 제주경제발전의 공헌을 재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해서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 제주도민과의 관계 정상화 즉, 향후 기증과 같은 일방적인 물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인적교류 나아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일방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제주도 미래를 함께 열어가갈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창조할 수 있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이 제주경제와의 연관성을 시계열적 상관분석과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재일 제주인들의 경제생활 연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재일 제주인들의 기증에 대한 시론 수준의 글이다. 즉 연구의 마무리가 아닌 시작을 알리는 글이다. 이 글을 계기로 해서 재일 제주인 기증과 재일 제주인에 대한 역사·문화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아울러 이에 대한 학제간 연구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고광명·진관훈, 「在日 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지역사회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집 1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6.
- 고동훈, 「濟州島出身者の日本移住に關する研究」, 『漢學山』 제8호, 재일본제주도민협회, 2001, p. 150.
- 金正根·園田恭一·辛基秀, 「在日韓國·朝鮮人の 健康·生活·意識」, 동경: 明石書店, 1995.
- 杉原 達, 「越境する民: 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 일본: 新幹社, 1998.
- 신행철,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小川伸彦·寺岡伸悟, 「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 寄贈」, 『奈良女子大學 社會學論集』 2號, 일본: 奈良女子大學, 1995.
- 이문용,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서울: 집문당, 1998.
- 이경원·진관훈, 「제주도 지방정부의 재일 제주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제9권 제3호, 한국비교정부학회, 2006.

- 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국사무소, <http://www.mindan.org.kr>
- 在日本濟州開發協會, 『愛鄉無限-在日本濟州開發協會30年史-』 재일본제주개발협회, 1991.
- 在日本濟州道民會, 『日本の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제주:나라출판, 1993.
- 在日濟州道親睦會, 『創立10周年 記念史』, 재일본제주도친목회, 1976.
- 濟州開發協會, 『漢拏山』, 제주개발협회, 1981.
- 濟州開發協會, 『漢拏山』, 제주개발협회, 2002.
- 제주도, 『愛鄉의 보람 -100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로-』 (증보판), 제주도, 1999.
- 제주도,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 편람』, 제주도, 1996.
- 제주도, 『愛鄉의 보람 -재일동포 기증실적-』, 제주도, 1991.
- 제주도, 『재외제주도민회 편람』 제주도, 1999.
- 진관훈, 『재일 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5.

[Abstract]

## A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ontributions to Jeju of the Jejuian Residents in Japan

Kim, Hee-chul

Professor, Dept. of Trade, Cheju National Univ.

Jin, Gwan-hun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Cheju National Univ.

This paper is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ontributions to Jeju of the Jejuian Residents in Japan.

In view of the result of this study so far achieved gives an outline of : the category of business of Jejuian residents in Japan have a majority in the section of restaurant business and bag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 the section of shoes manufacturing industry, restaurant business and construction. However, these categori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categories of Korean(or Chosun) resident in Japan but it shows that is the basi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Secondly, in the view of classified by a region, Bukjejugun has a major possession and it regards that most of Jejuian from Bukjejugun are running their business in Japan .

And classified by form of their company, most of them are running their business as a company limited and it shows Jejuian runs more their business as company limited than other form of company. In the case of age, businesses are running by aged 70's as founders and they still remain as an operator without designating their successors. In addition, classified by types of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like as shoes, plastic and needlework has a major possession. In this study, the result to lead

that looking forward both Jeju community and Jejuian resident community in Japan as well as Japan society will promote expansive exchange among them. This is applied to comprehend specific characters of Jejuian merchants and industrial in Japan and grope appropriate way of their activities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m.

**Key Words** : Jejuian resident in Japan, Economic Activities of the Jejuian residents in Japan, Social Networks of the Jejuian residents in Japan, Contributions to Jeju of the Jejuian Residents in Japan